“전쟁판 뒤흔들었다”…댐 파괴, 러-우크라 누가 손해일까

우크라 대반격 작전엔 차질…“푸틴, 진격 늦추려 댐 파괴” 관측

크림반도 물부족 보면 러 타격…그래도 전문가 ‘러 소행설’ 무게

우크라이나 내 러시아 점령지인 남부 헤르손주 카호우카 댐이 파괴돼 홍수가 발생한 6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구조대원들이 주민들을 대피시키고 있다. /연합뉴스

러시아가 점령 중인 우크라이나 남부 헤르손 주의 카호우카 댐 붕괴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새로운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댐 붕괴가 러시아 점령지 탈환을 위한 우크라이나의 대반격이 시작된 것으로 관측되는 미묘한 시점에 벌어진 만큼 전쟁의 향방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다.

영국 BBC 방송은 6일(현지시간) ‘댐을 파괴하면 누가 이득을 보나’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카호우카 댐 붕괴가 지난해 발생한 해저 가스 파이프라인 노르트스트림 폭파 사건을 떠올리게 한다고 지적했다.

러시아에서 유럽으로 가스를 직수출하는 주요 경로인 노르트스트림 폭파 사건의 배후로 서방이 러시아를 지목했는데 이번에도 러시아를 향해 의심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러시아는 ‘우리도 피해를 보는데 왜 이런 일을 벌이겠느냐’며 반박하고 있다.

◇우크라 대반격 차질? 기갑부대 남부 진격에 산통 깨졌나=우크라이나 남부를 관통하는 드니프로강에 있는 카호우카 댐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양측 모두에 전략적 가치가 큰 것으로 평가돼 왔다.

우크라이나가 반격에 성공하려면 크림반도와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를 잇는 지역을 장악한 러시아의 방어선을 뚫어야 하는데 러시아는 지난 몇 달 동안 남부 아조우해로 향하는 우크라이나의 진격을 막기 위해 강력한 요새를 구축해왔다.

우크라이나가 자포리자 남쪽의 러시아 방어선을 뚫고 그 지역을 둘로 나눌 수 있다면 크림반도를 고립시키고 중대한 전략적 승리를 거둘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카호우카 댐이 붕괴하고 하류 지역이 침수되면서 헤르손 건너편 동쪽 강둑 지역은 우크라이나 기갑 부대가 진입할 수 없는 지역이 됐다고 BBC는 지적했다. 우크라이나군으로서는 전략적으로 중요한 진격로가 막힌 셈이다.

러시아는 과거에도 드니프로강에 있는 댐을 전략적으로 활용한 전력이 있다. 소련은 1941년 2차세계대전 당시 독일 나치의 진격을 막기 위해 드니프로강의 댐을 폭파했다. 당시 댐 폭파로 인한 홍수로 수천명에 이르는 소련인이 숨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BBC는 “카호우카 댐을 파괴한 쪽이 누구든 우크라이나 남부의 전략적 체스판을 뒤흔들어 양측이 (전략적으로) 많은 주요한 조정을 하게 하고, 우크라이나가 오랫동안 공언해온 반격의 다음 단계를 지연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크림반도 물공급 결딴나나…“푸틴, 양보할 수도” 관측까지=뉴스위크는 ‘푸틴이 크림반도를 포기할까’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댐 붕괴의 배후에 러시아가 있다고 보는 이들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크림반도를 희생할 수도 있음을 보여주는 사건으로 보고 있다고 보도했다.

뉴스위크에 따르면 대부분의 분석가들은 이번 댐 붕괴가 군사적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다.

유럽정책분석센터의 연구원 엘리나 베케토바는 뉴스위크에 이번 ‘공격’은 우크라이나 군인들이 드니프로강 왼쪽(동쪽) 강둑으로 진격할 수 없게 해 우크라이나의 점령지 탈환을 막으려는 러시아의 움직임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퇴역 육군 중장 스티븐 트위티도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군의 진격을 늦추기 위해 댐 파괴를 명령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그는 과거에도 전쟁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을 봐왔다며 “댐이 범람하면 물이 농지 등으로 흘러들어 땅이 진흙탕이 되고 장갑차가 진흙탕에 갇혀 통과할 수 없게 된다”고 설명했다. 미국 조지타운대의 경제학자 안데르스 오슬룬드는 카호우카 댐 붕괴를 1991년 걸프전 당시 사담 후세인 이라크 대통령이 쿠웨이트에서 퇴각하면서 유정에 불을 지른 것과 비교하기도 했다.

반면 퇴역 미 해병대 대령 마크 캔시언은 푸틴 대통령에게 크림반도는 엄청난 전과라며 “러시아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크림반도를 고수할 것”으로 내다봤다. /연합뉴스

美 하원 이어 상원서도 지한파 뭉쳤다

초당적 ‘코리아 코커스’ 결성

한미동맹 70주년 맞아

존 오소프 의원 등 4명 참가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미국 상원의원 4명이 초당적 차원에서 ‘코리아 코커스’를 결성했다.

존 오소프 상원의원은 6일(현지시간) 미국 상원 코리아 코커스(U.S. Senate Korea Caucus)를 결성한다고 발표했다. 지난 2003년 미국 하원에서 ‘코리아 코커스’가 결성된 데 이어 미국 상원에서는 처음 있는 일이다.

지한파 상원의원 모임인 이 단체에는 오소프 의원(민주)을 비롯해 댄 설리번(공화·알래스카), 브라이언 샤츠(민주·하와이), 토드 영(민주·인대이나) 등 4명이 참가했다. 이들은 초당파적 차원에서 한국과 미국의 동맹을 강화하고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 모였다고 오소프 의원실은 밝혔다.

민주당 소속인 오소프 의원은 “한미관계 챔피언으로서 한국을 두차례 방문하며 한미관계를 주도했다”며 “그런 이유에서 민주당과 공화당 의원들이 초당적으로 한데 모였다”고 출범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현대차 전기차 전용 공장 및 SK와 LG의 배터리 공장이 들어서는 조지아주를 지역구로 삼고 있다.

같은 당 소속인 영 의원은 “중국과 북한의 위협이 커지고 있지만, 한미관계는 확실하며 강력하다”며 “코리안 코커스는 상호 안보를 증진하고 인도·태평양 지역을 안정시키고 발전시키는 전략을 수립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화당 소속인 설리번 의원은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를 위해 방금 한국을 방문하고 돌아왔다”며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더욱 강력하고 애국적인 한미관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코리안 코커스 결성은 한미동맹 70주년 및 지난 4월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를 맞아 의미가 있다고 오소프 의원실은 덧붙였다. /연합뉴스

美 SEC, 바이낸스 이어 코인베이스 제소…비트코인은 반등

“투자자 보호 공개 의무 등 위반”

미국 금융감독 당국이 가상화폐 업계에 칼을 빼들었다.

미 증권거래위원회(SEC)는 6일(현지시간) 오전 뉴욕남부연방지방법원에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가 미등록 브로커 역할을 했다며 이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전날 세계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바이낸스와 그 창업자 자오창펑 최고경영자(CEO)를 제소한 지 하루 만에 미국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해서도 법적 조치에 나선 것이다.

SEC는 소장에서 코인베이스가 최소 2019년부터 가상화폐 취급을 통해 수십억달러를 벌었으나 투자자 보호를 위한 공개 의무를 회피해 증권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코인베이스 고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최소 13개 가상자산은 연방 규제당국이 규정하는 ‘가상자산 증권’에 해당한다고 SEC는 판단했다.

따라서 코인베이스는 연방 증권법의 적용 대상이지만, 회사 측은 이 사실을 알면서도 규정을 무시했다고 SEC는 주장했다.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은 트위터를 통해 “코인베이스는 관련법을 따르지 않음으로써 투자자들에게 사기와 조작 등을 예방할 수 있는 중대한 보호조치를 받을 기회를 박탈했다”고 말했다. 겐슬러 위원장은 CNBC방송 인터뷰에서 “코인베이스는 스스로를 거래소로 부르면서 다양한 기능을 섞어서 운용했다”면서 “뉴욕증권거래소가 헤지펀드를 운용하는 것을 본 적이 있느냐”고 비판했다. /연합뉴스

일상회복 후 첫 中대입시험…1291만명 응시

지난해보다 98만명 증가 역대 최대

낮 최고 기온이 40도를 웃돌고 곳곳에서 폭우가 예보된 후텁지근한 날씨 속에 중국의 대학 입학시험인 가오카오(高考)가 7일 시작됐다.

8일까지 이틀 동안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중국 전역에서 치러지는 올해 가오카오는 작년보다 98만명이 증가한 1291만명이 응시해 역대 최다 기록을 경신했다.

중국 중앙기상대는 이날 베이징과 스자좡이 각각 35도, 37도까지 오르는 등 대부분 지역의 낮 최고 기온이 30도를 웃돌고 광둥과 푸젠 등 남방 곳곳에서는 폭우가 내려 후텁지근한 날씨가 될 것이라며 수험생들이 컨디션 조절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올해 가오카오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엄격한 방역 통제를 실시하다 작년 말 ‘위드 코로나’로 전환한 뒤 처음 치러지는 것으로, 방역 당국은 고사장 내 마스크 착용을 수험생들의 자율에 맡겼다.

아울러 고사장마다 예비 시험장을 마련하고 보건 요원들을 배치, 발열 등 코로나19 의심 증세를 보이거나 몸이 불편한 수험생들이 차질 없이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했다. 수험생들은 신분증과 필기구 등만 지참할 수 있으며, 휴대전화 등 부정행위에 사용될 수 있는 전자기기 반입은 엄격히 금지된다. /연합뉴스

한국토지부동산(주) 전원주택 신축 매매 9억5천만원

전라남도 담양군 수북면

청소년수련관입구

■ 대지 : 979㎡ (296.14평)

■ 건물 : 323.86㎡ (98평)

(지상2층, 지하주차장포함)

상담문의 010-3733-3933